

1.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국어의 ‘있다’는 경우에 따라 ㉠ 동사적인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하고 형용사적인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한다.

- ① 나는 오늘 집에 있다.
- ② 할아버지는 재산이 많이 있으시다.
- ③ 눈이 그칠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 ④ 비도 오니 그냥 집에 있자.

2. 사이시옷 표기가 모두 옳지 않은 것은?

- ① 봉엿빵 – 공붓벌레 ② 마긋간 – 인삿말
- ③ 공깃밥 – 백깃장 ④ 도맷값 – 머릿털

3.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예배당에 가서 찬미하고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중간에 갑자기 나는 ‘혹시 아저씨도 예배당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나서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 남자석을 바라보았습니다. (㉠) 하, 바로 거기에 아저씨가 와 앉아 있겠지요. (㉡) 아저씨는 어른이면서도 눈 감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처럼 눈을 번히 뜨고 여기저기 두리번 두리번 바라봅니다. 나는 얼른 아저씨를 알아보았는데 아저씨는 나를 못 알아보았는지 내가 빙그레 웃어 보여도 웃지도 않고 멀거니 보고만 있겠지요. (㉢) 나는 손을 흔들었지요. (㉣) 아저씨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말더군요.

- | | ㉠ | ㉡ | ㉢ | ㉣ |
|---|------|------|------|------|
| ① | 그런데 | 그랬더니 | 그래 | 그러니까 |
| ② | 그런데 | 그래 | 그랬더니 | 그러니까 |
| ③ | 그랬더니 | 그런데 | 그래 | 그러니까 |
| ④ | 그랬더니 | 그런데 | 그러니까 | 그래 |

4. <보기>의 밑줄 친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 떼들이
자기들끼리 ㉠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일렬 이열 삼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 ① 삶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드러나 있다.
- ② 세상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③ 부조리한 현실에 타협하는 회한이 드러나 있다.
- ④ 좌절해도 꺾이지 않는 굳건한 의지가 드러나 있다.

5. 표준 발음이 아닌 것은?

- ① 핏다[할따] ② 밝게[밥 : 깨]
- ③ 엽거나[얼꺼나] ④ 맑고[막꼬]

6. 밑줄 친 절의 성격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 ① 나는 영수가 만든 음식이 정말 맛있다.
- ② 영수가 한 질문이 너무 어려웠다.
- ③ 나는 영수가 애쓴 사실을 알고 있다.
- ④ 영수가 들은 소문은 헛소문이었다.

7. 밑줄 친 부분에서 선어말 어미 ‘-겠-’의 기능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 ① 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보니 조만간 비가 오겠다.
- ② 지금쯤 철수가 집에 도착하여 밥을 먹겠다.
- ③ 철수가 이번에는 자기가 가겠다고 하였다.
- ④ 8시에 출발하면 10시쯤에 도착하겠구나.

8. 외래어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 ① 옐로카드(yellow card), 스태프(staff), 케이크(cake)
- ② 가디건(cardigan), 뷔페(buffet), 캐러멜(caramel)
- ③ 냅킨(napkin), 점퍼(jumper), 초콜렛(chocolate)
- ④ 팡파레(fanfare), 크로켓(croquette), 마사지(massage)

9. <보기>의 밑줄 친 단어가 가리키는 것이 가장 다른 하나는?

————<보기>————
이것은 소리 없는 ㉠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 꽃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아아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 ① ㉠ ② ㉡ ③ ㉢ ④ ㉣

10. 밑줄 친 부분이 표준어가 아닌 것은?

- ① 휴지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라.
- ② 그는 여직껏 그 일을 모르는 척했다.
- ③ 두리몽실하게 말 돌리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해 봐.
- ④ 살짝 주책스러운 면이 있지만 인품은 훌륭한 사람이다.

11. <보기>의 밑줄 친 단어가 가리키는 것이 가장 다른 하나는?

—<보기>—

안녕히 계세요
도련님.

지난 오월 단옷날, 처음 만나던 날
우리 둘이서, 그늘 밑에 서 있던
그 무성하고 푸르던 ㉠ 나무같이
늘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저승이 어딘지는 똑똑히 모르지만
춘향의 사랑보단 오히려 더 먼
땀 나라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천 길 땅 밑을 ㉡ 검은 물로 흐르거나
도솔천의 하늘을 ㉢ 구름으로 날더라도
그건 결국 도련님 곁 아니어요?

더구나 그 구름이 ㉣ 소나기 되어 퍼부을 때
춘향은 틀림없이 거기 있을 거예요.

- ① ㉠ ② ㉡ ③ ㉢ ④ ㉣

12.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바짝 쨌 찌개를 다시 끓였다.
② 가을이라 그런지 은행잎들이 정말 노라네.
③ 앉은 자세가 곧바라야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④ 생김은 저러나 마음은 매우 유순하다.

13. <보기 1>에 이어질 글을 <보기 2>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1>—

구글은 몇 년 전부터 독감 관련 검색어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다.

—<보기 2>—

(가) 다시 말해 독감과 관련된 단어 검색량을 보면, 실제
독감 환자 수, 독감 유행지역 등을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나) 그리고 이러한 패턴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데이터와
비교해보았더니, 검색 빈도와 독감 증세를 보인 환자
수 사이에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 이는 검색 빈도수가 개인의 생활을 반영한다는 평범한
사실을 보여주지만, 여기에 개인의 유전 정보와 진료
정보 등이 합쳐지면 세계 시민의 보건복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구글의 주장이다.

(라) 그 결과, 매년 독감 시즌마다 특정 검색어(독감 이름,
독감 예방법 등) 패턴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다.

- ① (가) - (나) - (라) - (다) ② (가) - (라) - (나) - (다)
③ (라) - (가) - (나) - (다) ④ (라) - (나) - (가) - (다)

14. <보기>의 밑줄 친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새로운 사물과 행동이 나타
나게 되면 그에 맞도록 언어가 변화하는데 이러한 변화의
예로는 ㉠ 기존 어휘의 의미가 확대되거나 새로운 의미로
변화하는 경우, 아예 새로운 어휘가 나타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①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을 ‘이모’라고 부르기도 한다.
② 예전에는 ‘통닭’이라고 했지만 요즘엔 ‘치킨’이라고
한다.
③ ‘아침 겸 점심’을 뜻하는 말로 ‘아점’이라는 말이
나타났다.
④ 천연두가 사라지면서 ‘마마’라는 말도 이제는 쓰이지
않게 되었다.

15.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예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훈민정음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로 소리의 체계에 따라 문자의 모양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자음에서 조음
위치가 동일한 소리가 비슷한 글자 모양을 가지도록
기본자와 가획의 원리에 따라 문자 체계를 만들었다.

- ① 목청, ‘ㅇ’과 ‘ㅎ’
② 윗잇몸, ‘ㄴ’과 ‘ㄷ’
③ 센입천장, ‘ㄱ’과 ‘ㅋ’
④ 여린입천장, ‘ㅅ’과 ‘ㅈ’

16. 밑줄 친 부분의 품사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오늘이 3월 1일입니다. [명사]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부사]
- ② [자기가 먹을 만큼 먹어라. [의존 명사]
[나도 철수만큼 잘할 수 있다. [조사]
- ③ [그곳은 비교적 교통이 편리하다. [부사]
[이 연구는 비교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명사]
- ④ [혀가 굳어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 [형용사]
[그는 사람됨이 굳고 인색해서 함부로 돈을 빌려
주지 않는다. [동사]

17. <보기>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미디어의 첫 혁명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인쇄술의 발전은 지식 제도 면에서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 가운데 가장 현저한 변화는 학교와 교사의 기능에서 생겨났다. 다시 말해서, 학교와 교사 없이도 독학을 할 수 있는 ‘책’이 나왔던 것이다. 독서에 의한 학습이 이루어짐으로써 학교 제도, 또는 기억이라는 개인의 습관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게 되었다. 기억의 관습에 가한 변화는 인쇄술 발달이 가져온 중요한 업적이다.

인쇄술의 발달로 당연히 책이 양산되고 책값 역시 저렴해졌을 뿐 아니라, 주해자/주석자의 중요성은 반감된 채 다양한 책들이 서점과 서가에 등장하게 되었다. 그 결과 여러 텍스트를 대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며, 자연스레 지식 사회에 대한 비판과 검증이 가능해졌다.

- ① 독점적인 학설이나 학파의 전횡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특정 학설의 권위주의적인 행보도 긴 생명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 ② 교사의 권위는 책의 내용을 쉽게 설명해줌으로써 독서를 용이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더욱 공고해졌다.
- ③ 독서 대중의 비판과 검증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 사회는 지식의 독점과 권력화에 매진하게 되었다.
- ④ 저자의 권위가 높아짐으로써 책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독서 대중이 탄생하였다.

18. 사자성어 중 뜻이 나머지와 가장 다른 하나는?

- ① 지란지교(芝蘭之交)
- ② 금란지계(金蘭之契)
- ③ 문경지교(勿頸之交)
- ④ 단순호치(丹脣皓齒)

19. <보기>의 ㉠~㉣의 한자 표기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꼭두쇠’는 남사당패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꼭두쇠는 남사당패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존재이다. 단원 가운데 ㉠ 규율을 어긴 단원에 대해 형벌을 명령하는 것도 꼭두쇠이다. 꼭두쇠가 ㉡ 노쇠하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거나 단원들의 신임을 잃게 되면 단원들의 ㉢ 추대로 새로운 꼭두쇠를 ㉣ 선출한다.

- ① ㉠ - 規律
- ② ㉡ - 老衰
- ③ ㉢ - 推戴
- ④ ㉣ - 先出

20. <보기> 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이러한 음악의 한배를 있게 한 실제적 기준은 호흡이었다. 즉,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한배의 틀이 된 것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진 방법을 선인들은 양식척(量息尺)이라고 불렀다. ‘숨을 헤아리는 자(尺)’라는 의미로 명명된 이 방법은 우리 음악에서 한배와 이에 근거한 박절을 있게 한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시계가 없었던 당시에 선인들은 건강한 사람의 맥박의 6회 땀을 한 호흡(一息)으로 계산하여 1박은 그 반인 3맥박으로 하였다. 그러니까 한 호흡을 2박으로 하여 박자와 한배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다. 반면 서양인들은 우리와 달리 음악적 시간을 심장의 고동에서 구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였다. 즉, 맥박을 기준으로 하여 템포를 정하였다. 건강한 성인은 보통 1분에 70회 전후로 맥박이 뛰한다고 한다. 이에 의해 그들은 맥박 1회를 1박의 기준으로 하였고, 1분간에 70박 정도 연주하는 속도를 그들 템포의 기본으로 하였다. 그래서 1분간 울리는 심장 박동에 해당하는 빠르기가 바로 ‘느린 걸음걸이의 빠르기’인 안단테로 이들의 기준적 빠르기 말이 되었다.

- ① 주장을 먼저 제시한 뒤 다양한 실례를 들어 타당성을 증명하고 있다.
- ② 서로 대립되는 두 견해를 제시하고 검토한 뒤 제3의 견해를 도출하고 있다.
- ③ 대상의 특성을 분석한 뒤 대조하여 대상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 ④ 구체적인 사례를 먼저 제시한 뒤 통념을 반박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 면은 여백입니다.